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천국 문 앞에 서자 한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나훔입니다.”

그러자 새로 온 사람이 머뭇거리며 묻습니다. “죄송한데... 누구라고 하셨죠?”

“선지자요. 성경에 있는 나훔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합니다. “성경에... 나훔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도 나훔은 가장 덜 읽히고, 덜 인용되고, 가장 잘 모르고 지나가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면 아마 나훔서는 밑줄도 거의 없고, 새 책 냄새가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잊혀진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나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 내가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어려움과, 힘의 세력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실제로 “나훔(Nahum)”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나훔을 이해하려면, 역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300년 이상 동안 아시리아 제국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대국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미국이겠지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면, 아시리아는 “평화”가 아니라 “**공포**”로 통치했습니다.

- 도시를 불태우고,
-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 손·코·귀를 자르고,
- 해골을 성문 앞에 쌓고,
- 민족 전체를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충분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아이들은 비명도 못 지르고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만큼 아시리아는 공포와 악의 대상이었습니다.

앗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도 빗겨갈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북왕국은 BC 722년에 앗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도 간신히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BC 701년, 아시리아는 유다의 46개 도시를 파괴하고 20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요지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시리아는 무적이었고, 니느웨는 바로 그 권력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 할 일이 일어납니다.

BC 612년, 니느웨가 무너진 겁니다!

바벨론, 메대, 스키타이의 연합군이 난공불락의 도시를 포위하고는 무너뜨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몰락은 비극이 아니라 정의 구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훔은 니느웨가 무너지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나훔의 활동 시기를 BC 660~630년 사이로 봅니다.

나훔서 1:1을 보십시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묵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 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직도 건재한 제국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는 거지요.

아니, 아직 아시리아가 여전히 강하고, 니느웨는 여전히 건재한데 그런데 나훔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제국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담한 목소리입니까?

시퍼런 권력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 인물인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그 역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체제 앞에서 용기있는 싸움을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요.

그의 이야기는 바야흐로 15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답: 아니요.

영국 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권력층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는 무지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층의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다룰 수 있었지요.

게다가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언어였죠.

그런데 틴데일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교황의 모든 법에 반대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삶을 주신다면, 밭가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알도록 만들 것이다.”

그의 삶은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권력자들의 추격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밀어 부쳤습니다. 결국, 신약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성공을 하지만, 그 결과는 1536년, 화형을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년 후 그의 번역이 **최초의 공인 영어 성경**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체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나훔도 당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시리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훔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그 답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훔 1:2–3을 보실까요?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그리고 7-8 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므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 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나훔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관찰자가 아니다.
-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Divine Warrior)** 이시다.
- 그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의 크로노스에 개입하셔서 악을 멸하시고, 그분의 공의를 일으키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신다.**”

이집트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땅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네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못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못 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3:1-4)

나훔서는 계속됩니다. 이제 그의 메시지는 거의 장송가처럼 들립니다.

“앗시리아의 왕아, 네 목자들이 다 죽고 네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네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흘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네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네 부상은 치명적이다. 네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네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3:18-19)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이렇게 물음표로 끝이 납니다.

마치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오픈 엔드로 말씀이 끝나는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서와 마찬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가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저는 누구를 해치거나 죽인적이 없어요! 저는 해골을 만져 본적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로 사람을 해친적이 얼마나 많던가요?

온갖 미움과 욕설이 입밖에 나온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 속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적이 있지 않던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탐욕, 편안함,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적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우리는 이런 죄로 인해 여전히 **죄책감과 상처, 두려움, 수치심**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가면 속에 살아갈 때가 많지 않던가요?

요지는, 우리 안에도“ 니느웨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말하는 심판의 경고가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훔에 나오는 하나님—

- 질투하시고
- 원수를 갚으시고
-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21 세기에 왔다고 바꿔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여전히 전지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듣지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 나훔이 본 Divine Warrior 가

•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Suffering Servant)이 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심판자로 오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셔야 할 잔—
죄의 잔, 죽음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훔이 말한 심판의 끝이 “치명적 부상”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 곧 죽음이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
회복과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훔이 전하는 니느웨의 이야기는 폐허로, 절망으로
끝났지만
복음은 회복과 새로운 창조로 끝납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상황 혹은 내 자신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입니다.

유다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아시리아는 여전히 강력했고,
 유다는 여전히 작고 연약했고,
 세상은 여전히 폭력적이고 불안정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실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실꺼라는 겁니다.

나훔 1:15을 보실까요?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아라. ...”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예배해라. 계속 감사해라. 계속 (나를) 신뢰해라.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바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무너지지 않을것 같은 제국 앞에 서 있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입니까?

오늘 날의 세상 정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와의 싸움인가요?

여기 지치신분 계신가요?

가슴이 먹먹하신 분 계신가요?

도저히 앞길이 안보이신 분 계신가요?

오늘 나훔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 모든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 하나님은 온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든든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 앞에서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악을 끝내 심판하시며,
주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니느웨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교만과 두려움과 숨겨진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용서와 치유와 새 생명을
더 깊이 불들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1. 내 삶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 구조, 죄의 습관, 두려움 등...)

2. 나훔이 선포한 하나님—공의로우시고, 악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환난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내가 새롭게 붙잡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3.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니느웨의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만, 탐욕, 원한, 편안함에 대한 집착,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등)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4. 이번 추수감사절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한 가지 적어본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와 나누겠습니까?